



미만성 갑상선종

정상적인 갑상선은 무게가 20그램 미만으로 눈으로 보았을 때 커져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졌을 때 만져지지 않습니다. 목의 아래 부위가 커져 보이거나 손으로 만져지는 경우 갑상선의 크기가 커져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갑상선종**이라고 부르며, 갑상선 전체가 전반적으로 커져 있는 경우를 **미만성 갑상선종**이라 합니다.

미만성 갑상선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갑상선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갑상선기능은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고 단순히 크기만 커져 있을 경우도 있는데, 이를 **단순 갑상선종**이라 합니다. 단순 갑상선종은 갑상선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서도 자주 관찰되는데 갑상선기능이 정상인 경우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갑상선기능에 이상이 있으면서 미만성 갑상선종을 보이는 경우 각각에 맞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미만성 갑상선종이 발견되었을 때 이것이 단순 갑상선종인지 갑상선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갑상선종인지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혈액검사**를 통해 **갑상선기능과 갑상선에 대한 자가항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상선기능이 정상이며 갑상선에 대한 자가항체검사 결과가 음성을 보이는 경우 단순 갑상선종이라 진단하고 이 경우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혈액검사결과 갑상선기능이상(갑상선기능항진증 또는 갑상선기능저하증)과 함께 갑상선에 대한 자가항체가 양성을 보이는 경우 각각의 질환에 대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갑상선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보다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갑상선기능항진증**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미만성 갑상선종과 함께 체중감소, 심장이 빨리 뼉, 땀을 많이 흘림, 더위를 쉽게 탐, 손 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혈액검사에서 갑상선호르몬 수치가 올라가 있으며 갑상선에 대한 자가항체가 양성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 갑상선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보다 적게 만들어지는 경우를 **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미만성 갑상선종이 동반되고 몸이 붓고, 쉽게 지치고 피곤함을 느끼며 체중이 증가하고 추위를 쉽게 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혈액검사에서는 갑상선호르몬 수치가 떨어져 있고 갑상선에 대한 자가항체검사 결과는 양성을 보이게 됩니다.

미만성 갑상선종

미만성 갑상선종의 원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갑상선종

- 갑상선의 크기가 커져 있다(부드럽게 만져진다).
-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 갑상선호르몬 수치가 정상이다.
- 갑상선 자가항체검사 결과가 음성이다.

2. 그레이브스병

- 갑상선의 크기가 커져 있다(단순 갑상선종 보다는 약간 딱딱하게 만져진다).
-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증상이 나타난다.
- 갑상선호르몬 수치가 증가해 있다.
- 갑상선 자가항체검사 결과가 양성이다.

3. 만성갑상선염(하시모토 갑상선염)

- 갑상선의 크기가 커져 있다(딱딱하고 불규칙적으로 만져진다).
 -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증상이 나타난다.
 - 갑상선호르몬 수치가 감소해 있다.
 - 갑상선 자가항체검사 결과가 양성이다.
- 만성 갑상선염의 초기에는 갑상선기능 및 자가항체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올 수 있어 단순 갑상선종과의 감별진단을 위해 필요 시 갑상선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